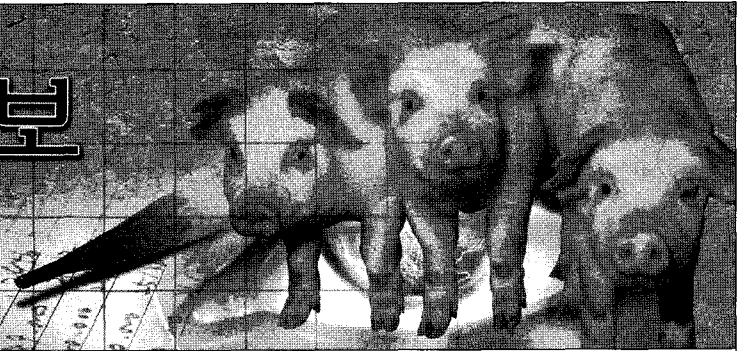


# 축산정보



## 2004년 비육돈 생산비 전년 비 14% 증가

### -농림부, '04년 축산물 생산비 발표

양돈농가의 '04년도 생산비가 비육돈(100kg)의 경우 17만 9천원으로 '02년 15만 5천원, '03년 15만 7천원에 비해 2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지난 5월 5일 발표한 '2004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 축종의 생산비는 5~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축산물 산지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양축의육이 높아지면서 출하체중, 번식률 등 가축 생산성이 크게 향상돼 축산경영이 선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18page 참조)

## 제주 돈열 항체는 혈분·혈장 단백질 등이 원인

### -검역원, 5월 10일 역학 조사결과 발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1월 제주도 돼지에서 검출된 돼지 콜레라 항체는 야외바이러스나 예방주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방주

사를 맞은 돼지의 혈액 등이 들어간 사료에 의한 것이라고 5월 10일 발표했다.

이는 돼지콜레라 항체가 이 병에 걸렸거나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혈분 등을 먹인 경우에도 검출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검역원은 그동안 검출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역학조사와 사육돼지의 급여시험,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현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육지의 일부 농가가 도축장 출하직전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돼지의 혈액내 백신주가 잔류케 되었고, 이 상태의 혈액을 혈분(단미사료) 등으로 제조하면서 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혈분제 등에 백신주(항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항체발생으로 중단된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위해 6월부터 일본정부와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 돼지고기 수입량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

4월 돼지고기 수입량이 총 2만 626톤으로 전월 2만4천160톤보다 다소 감소했다. 특히 삼겹살 수입량은 다른 부위보다 여전히 많았으나 3월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는 최근 축산물 수입검역통계 4월 하순 조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4월까지 돈육 수입량이 총 7만6천707톤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누계인 30,735톤과 비교해 150% 증가한

### ■ 국별 돼지고기 수입현황

(단위: 톤)

국 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4월중 수입량	5,753	2,445	2,217	2,187	1,722	1,144	1,092	1,062	895
1~4월 수입누계	19,010	8,971	7,663	8,993	7,461	5,357	4,218	3,184	3,947
국 별	스페인	폴란드	멕시코	영국	핀란드	한국	스웨덴	아일랜드	소계
4월중 수입량	579	519	374	199	117	95	89	87	20,626
1~4월 수입누계	2,435	2,120	1,264	521	369	566	566	142	76,707

물량이다.

국별로는 미국 5천753톤, 칠레 2천445톤, 캐나다 2천217톤, 프랑스 2천187톤 순으로 많이 수입됐으며, 벨기에와 덴마크, 네덜란드, 헝가리도 각각 1천톤을 넘어서다.

또한 삼겹살이 9천102톤으로 가장 많이 수입됐으나 전월 1만1천605톤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양이며, 부위별로는 각각 목심 3천982톤, 갈비 3천24톤, 앞다리 2천753톤, 뒷다리 176톤, 등심 157톤, 안심 85톤이 수입됐다. 한편 냉장돈육과 냉동돈육은 각각 482톤, 2만143톤이 수입됐다.

### '살 때 원산지 확인, 팔 때 원산지 표시'

- 농산물유통 명예감시원 발대식 및 캠페인 개최
- 정부, '06년 이후 10만명까지 연차별 확대 계획



농축산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 생산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먹거리를 지켜나 가는데 함께 손을 잡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사거리 미래웨딩타운 6층 연회장에서 한농연, 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연

맹, 주부클럽연합회, 대한양돈협회, 한우·양봉·양계·오리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각 단체장 등 소비자와 생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명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산물 유통투명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 행사에서는 송정기 우리 협회 전북도협의회장이 참석한 명예감시원들을 대표해 명예감시원 증서를 수여받았으며, 최영열 회장, 이재식 부회장, 김성근 경북도협의회장,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우리 협회는 생산자단체 중 가장 많은 전국 170여명이 명예감시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돼지고기 유통 투명화를 위해 돼지고기 유통감시원 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세부 일정에 돌입한 상태로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전국 도협의회장 및 지부장 등은 농산물 명예감시원 자격을 갖고 감시활동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 포장육에 '도축장·종류·부위명' 표시 의무화

앞으로 포장육에 '도축장명'과 '종류', '부위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5월 10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포장육에 '도축장명'을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표시해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것에서 '사용된 모든 원재료에 대해 표시'토록 하고, 축산물 중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인 햄류, 소시지류, 우유류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 소비자,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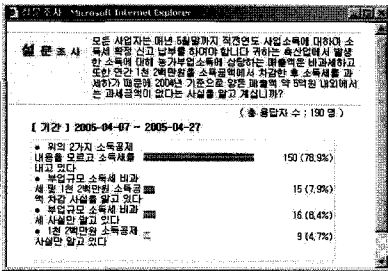
전국주부교실중앙회(회장 이윤자)는 4월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축산 관련 단체장들, 전국 16개 시·도지부, 234개 시·군·구 지회의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친환경축산업의 발전과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주제로 전국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여성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축산물 생산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우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물 애용에 앞장설 것,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관심 제고할 것,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 선별능력 향상으로 부정판 유통거래 근절에 앞장서는 감시자가 될 것,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친환경축산농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 양돈농가, 소득세 관련 내용 너무 몰라!

- 부업규모 농가 소득세 전액 면제
- 2004년 매출액 약 5억원까지 소득세 없어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부업규모 농가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소득금액에서 1천200만원 차감 후 소득세를 과세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7일~26일까지 우리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직전연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농가부업소득에 상당하는 매출액은 비과세하고 또한 연간 1천2백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2004년 기준으로 양돈 매출액 약

5억원 내외에서는 과세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응답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2가지 소득공제 내용을 모두 모르고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부업규모 소득세 비과세 및 1천2백만원 소득금액 차감사실만 알고 있는 응답자가 8.5%, ‘부업규모 소득세 비과세 사실만 알고 있다’ 7.4%, ‘1천2백만원 소득공제 사실만 알고 있다’ 5.1%를 나타냈다.

## 300만평 규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 조성

-경중·축산 연계 친환경농업 정착에 주력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는 “농가당 1ha 미만의 소규모 친환경농업방식을 시군 또는 읍면단위로 묶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300만평 규모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도까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등 현재 2.5% 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2010년 10%까지 늘리기 위한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추진해온 소규모(10~50ha) 친환경농업지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중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시군단위 친환경농업 실천

이 시급한 지역과 새만금상류지역 등 환경민감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돼지 출하체중 증가세

- 평균 2kg 증가한 110kg

올해 1분기 돼지 도축두수는 343만2천391두로 전년동기대비 7% 감소했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1분기 도축두수는 343만2천두로 나타났으며, 평균 생체중량은 110kg으로 2004년 108kg보다 2k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역원, 축산사업장별 방역지침서 제작·보급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 ‘축산업장별 방역지침서’ 5만3천부를 제작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시설 운영자 등에게 보급한다.

검역원은 “지침서는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 운영자와 농장출입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것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침서에는 차단방역 기본수칙 및 소독실시요령 등 가축사육농가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과 축종별 사육농가 방역준수 사항,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림부, 투자효율성 제고 위해 농림사업 대폭 개편키로

#### -가축방역 사업 등에 내년 예산 증액 또는 유지 계획

농림부는 지난해 추진한 주요 농림사업(135개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농작물 재해보험, 영농 규모화, 가축 방역사업 등 88개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자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마련한 '투융자 심사 평가시스템 혁신방안'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여기서 제시된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친환경농업육성 및 가축방역 등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현 수준대로 유지하고,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지원 및 운영자금 지원 등 24개 사업을 8개 사업으로 통합키로 했다. 한편 유기축산시범사업 및 축산물자율수급 조절 등 사업은 중단하고, 지역특화사업, 축산업등록지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 편성키로 했다.

앞으로 농림부는 재정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선택과 집중,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우리농업 희망찾기」정책공모 65건 접수

농림부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리농업 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정책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번 정책공모는 농림부가 농민단체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우리 협회를 비롯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민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대상은 상금 3,000만원(1건), 최우수상은 상금 2,000만원(3건)과 상장을 수여하는 등 총 19건을 선정해 총 1억9천5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된 과제는 5월중에 '공모과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심사기준 및 평가를 거쳐 결과를 발표하고, 채택된 제안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우리 협회는 4월 30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미곡농가와 양돈농가가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구축 제안서'를 제출했다.

### “돼지 등심·안심도 맛있어요!!”

#### -농협중앙회 경북·경기지역본부 소비촉진 시식회 개최



농협 경북지역본부는 5월 5일 어린이날 영천시 보현산 천문대 별빛축제 행사장에서 '국산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소비촉진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식회는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고추장 양념 주물럭 및 로스

구이와 석쇠와 숯불을 이용해 갖 구워낸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돼지고기 저지방부위의 담백한 맛을 소개했다. 특히 안심, 등심, 전·후지 등 저지방부위를 특장차량을 활용해 할인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었다. 또한 「내 몸이 사랑하는 돼지고기 요리 30」 등 요리홍보 책자를 배부하고, 돼지고기 효능과 관련한 패널도 전시해 돼지고기의 새로운 요리법과 상식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농협경기지역본부도 5월 12일(목) 수원유통센터 장터에서 소비촉진 시식회를 개최하였으며, 유통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산 돼지고기 저지방부위의 맛과 영양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했다.

농협경기지역본부는 이번 행사가 “저지방부위의 소비 붐을 조성해 편중된 돼지고기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각종 요리법을 소개해 균형 있는 돈육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

## 한-캐나다 FTA 추진관련 공청회 개최

-외교통상부, 5월 6일 서울 무역센터 타서

외교통상부는 5월 6일(금) 무역센터(트레이드 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한-캐나다 FTA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 및 국민여론을 청취하기 위하여 「한-캐나다 FTA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캐나다 FTA 체결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민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6명을 발표 및 토론자로 초청해 열기를 올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이 한-캐나다 FT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 제1주제 발표를, 이연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캐나다 FTA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과 협력방안에 대해 제2주제를 발표하였으며, 한-캐나다 FTA 체결시의 기대효과와 협상 추진시 분야별 고려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03년 돼지고기 생산량 OECD 13위

-농림부, 「통계로 보는 세계속의 한국농업」 발표

2003년 우리나라 돼지고기 생산량은 1백만4천톤으로 세계 18위, OECD 회원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농림부는 최근 농가인구, 경지면적, 작물생산량, 축산물생산량, 농림축산물 수출입 등의 농업관련 주

요지표를 세계 각국 및 OECD 회원국과 비교한 「통계로 보는 세계속의 한국농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03년 기준 925만1천두로 세계 17위, OECD 11위를 차지했으며, 돼지고기 생산량은 세계 18위, OECD 13위, 도축두수는 1천528만7천두로 세계 16위, OECD 10위, 돼지고기 수출액은 3천1백만달러로 세계 24위, OECD 20위, 돼지고기 수입액은 1억9천6백만달러로 세계 19위, OECD 17위를 각각 차지해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OECD 30개 국가 중 중상위권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 양돈산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선정

-1개 사업단에 3년간 평균 60억원 지원

농림부는 '양돈산업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으로 경상남도를 선정하고, 1개 사업단에 3년간 평균 6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가 시행한 「지역농업클러스터」시범사업의 일환인 '양돈산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산·학·관·연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 국내 최대 규모 '연암양돈유전자원센터' 준공

천안연암대학은 최첨단 시설 및 기계를 갖춘 양돈유전자원센터를 지난 5월 6일 천안연암대학 서경



덕 회장, LG연암 학원 조판태 사무국장, 미국 종돈 협력사 WHITESHIRE/HAMROC社 Dr. LEMMON 사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암양돈유전자원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연암양돈유전자원센터는 총 부지 1만7천여 평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A,1사업부(용돈 250두)와 GGP사업부(원원종돈 400두)로 나누어져 있고 번식 및 검정사, 완전 무배출 최첨단환경방지사설, 자가 발전 시설을 갖춘 변전실을 포함해 총 건축면적 3425.9평에 달한다.

앞으로 연암양돈 유전자원센터는 액상 및 동결정액을 생산, 공급하여 한국양돈농가의 돼지개량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인재 양성 등 우리나라 양돈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농협, 축사 누전 화재 사전 방지

-8개 점검반 구성, 5월~8월까지 1,000농가 대상 점검

농협공제가 축산농가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막기 위해 5월부터 8월말까지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료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농협에서 구성한 전기안전점검반은 도별로 8개조를 편성해

1,000농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노후화된 설비와 전기사용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난잡한 전기배선이나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시설 등은 무료로 교체해 준다.

농협은 "지난해의 경우 축산농가가 가입한 화재공제 가운데 전기로 인한 화재 사고는 173건이었으며, 보험금으로는 80억원(축산농가 전체 화재 공제금 149억원의 53%를 차지)을 지급할 정도로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 사료공장 HACCP 인증업체 지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5월 2일 농림부 및 사료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공장 HACCP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5월 3일자로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CJ 주식회사(인천공장), 농협사료 함안공장 등 3개 업체를 HACCP 인증 사료공장으로 지정했다.

### 1분기 양돈사료 생산량 감소

-사육두수 감소로 작년대비 감소 이어져

올해 1~3월 1분기 양돈사료 생산량이 127만9천606톤으로 전년동기 136만1천톤보다 8만1천톤이 감소해 6.0% 크게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3월과 비교했을 때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 3월 총 43만6천톤으로 전년동

### 신임 마사회장에 이우재씨



이우재 마사회장

이우재 회장은 KRA 사상 처음으로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임명됐다.

한국마사회(KRA) 신임 회장에 이우재(68)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이우재 회장은 KRA 사상 처음으로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임명됐다.

이우재 회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예산농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농업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또한 15대(한나라당), 16대(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통령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 대한수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 양돈조합연합회장 송건섭 조합장 선출



송건섭 조합장

한국양돈조합연합회는 5월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송건섭 대전충남

양돈조합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연합회는 감사 2명은 부산경남양돈조합과 제주양돈조합의 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선임키로 했다.

월 48만1천톤 대비 9.4%나 감소했다. 이처럼 양돈사료가 크게 줄었는데는 돼지 사육두수가 많지 않고, PED와 PMWS 등 질병으로 돼지 폐사가 나타난 까닭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2월과 비교하면 8.6%인 3만4천톤이 증가해 소폭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기술 양돈 워크숍 개최

-양돈연구회 "브랜드육 생산과 번식성 향상 방안" 주제

(사)한국양돈연구회(회장 이승준)가 주관하는 '신기술 양돈 워크숍'이 지난 5월 17일~18일 양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브랜드육 생산과 번식성 향상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국 사천농업대학 첸다이웨이 교수의 중국 양돈산업과 투자정보에 대한 특별강의를 비롯하여, 축산연구소 김영화 박사와 다산중돈의 박화춘 박사, 농림부 이상철 박사의 돈육 브랜드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양돈컨설팅연구소 안기홍 소장은 일본의 브랜드 사례를 소개했다.

둘째 날에는, 영국 AI 전문가가 "인공수정을 활용한 번식성 향상 방안"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김지훈 박사와 부경양돈 김만래 팀장, 서울대 박봉균 교수의 번식성 향상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양돈**